

공효진·김다미·라미란... '여배우 시대' 열린다

〈'행반' '가장 보통의 연애'〉 〈'마녀' 후속편〉 〈'결갑스'〉

마동석, 여전히 캐스팅 1순위
최대 기대작은 '보스톤 1947'
'타짜3' 등 시리즈 열풍 지속

여배우의 약진과 마동석의 쓰임, 시리즈의 붐과 더불어 대작 제작을 둘러싼 기대와 부담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감지됐다. 2019년 한국영화를 미리 접치는 4대 키워드로 꼽을 만하다.

CJ엔터테인먼트와 롯데엔터테인먼트, NEW, 쇼박스 등 투자·배급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내년 자사 라인업을 발표했다. 영화제를 찾은 영화 관계자들도 이에 관심을 보인 한편, 앞으로 기획하고 제작할 작품을 향한 다양한 구상을 풀어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엿본 내년 한국영화의 주요 흐름은 단연 여배우들의 약진이다. 다양한 장르와 소재에 적극 나서는 여배우가 유독 많다. 먼저 공효진은 범죄액션 '행반'과 로맨스코미디 '가장 보통의 연애'로 관객을 찾는다. 라미란·이성경은 투톱 수사물 '결갑스'



2019년 영화계 판도는 공효진을 비롯한 여배우들의 활약. '캐스팅 1순위'인 마동석과 하정우(왼쪽부터)의 여전한 스타파워 등으로 설명된다.

로, 박신혜·전종서는 미스터리 '콜'을 통해 분위기를 잇는다. 올해의 신인으로 꼽히는 김다미는 부산에서 '내년 '마녀' 후속편 촬영을 시작한다'고 처음 공개했다.

마동석은 내년에도 '캐스팅 1순위'의 위치를 공고히 할 전망이다. 배급사 라인업마다 마동석 주연작이 빠짐없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성남황소'(쇼박스), '시동'(NEW), '나쁜 녀석들: 더 무비'(CJ)는 물론 신생 투자배급사인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와 영화 '악인전'까지 함께

한다. 신세계가 자사 히트상품으로 기획한 히어로영화 '일렉트릭맨' 주연 후보에도 올라있다.

●제작비 상승 고민, 시리즈 영화는 계속
감독과 제작진은 관객을 만족케 할만한 영화 구상을 부산에서도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최근 표준계약서 도입 등에 따라 급상승하는 평균제작비 인상, 이로 인한 손익분기점 상승에 대한 부담과 고민이 교차했다. 대작을 기획하는 이들은 더 큰 책임을 안고 있다.

배우 하정우와 손잡고 '보스톤 1947'을 내놓는 강재규 감독은 "아직 제작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산에서 만난 그는 "규모가 있는 영화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점점 더 책임감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작환경이 되고 있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보스톤 1947'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열린 1947년 보스턴 국제마라톤대회에 출전한 코치와 선수의 실화를 다룬다. 내년 한국영화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지만, 시대극인데다 해외로게가 필요한 만큼 이를 이끄는 '선장'인 감독의 입장에선 고민이 깊다.

그럼에도 다양한 기획과 제작은 멈추지 않는다. 시리즈 영화의 열풍은 내년에도 활발해진다. 류승범·박정민의 '타짜: 원 아이드 잭'(타짜3), '해적'의 후속편 '해적: 도깨비 깃발', 바둑액션 '신의 한수'의 두 번째 이야기 '귀수'가 연이어 공개된다. 연상호 감독이 만드는 '부산행'의 후속편 '반도'에도 시선을 떼기 어렵다. 강동원이 주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해리 기자 g011024@donga.com

#해시태그 킷



'미션' 남창희 "모든 것이 좋았다"

연기자 남창희가 최근 종영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마지막 촬영 사진을 공개했다. 남창희는 파란 하늘과 푸른 들판을 배경으로 촬영 당시 입었던 의상을 입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것이 좋았다"며 드라마 '도깨비'의 유명 대사를 인용했다. 팬들은 '미스터 션샤인'의 마지막 대사였던 "씨 유 어게인"이라는 말로 화답했다.

#스포츠동아 #남창희 #미스터션샤인 #씨유 #도깨비

일출연집 (알아두면 쓸데없는 연예 잡학사전)

그래미-빌보드-아메리칸 뿃 3대 시상식, 뿃가 달라?

방탄소년단이 5월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에서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한 데 이어 10월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s)에서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은 이제 그래미어워즈에서 수상하면 미국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음악 시상식에서 모두 상을 받는 역사를 쓰게 된다. 흔히 그래미 어워즈와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어워즈를 합쳐 3대 시상식으로 부르는데, 그래미 어워즈는 다른 두 시상식을 압도할 만큼 그 권위가 남다르다.

그래미 어워즈는 전미레코드예술과 학아카데미(NARAS)가 주최하는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음악인·음반산업자·프로듀서·스튜디오기술자 등으로 이루어진 NARAS 회원들의 투표로 수상자가 결정된다. 1959년 제1회 시상식을 한 이래 매년 2~3월에 열리며, 영화의 아카데미상에 비견된다. 전통이 깊은 만큼 보수적인 시상식으로 평가받는다.

매년 가을 열리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1973년 그래미어워즈에 대한 ABC 방송사의 방영권이 만료되자 미국의 유명 방송 진행자 닉 클라크가 만들었으며, 프로그램 주최사는 '딕 클라크 프로덕션'이다. 수상자 선정에 팬들의 투표를 포함시키는 등 대중성에 치우친 성향을 보인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는 싸이가 2012년 뉴미디어 부문을 수상하며 MC해머와 피날레 무대를 장식했고, 지난해에는 방탄소년단이 무대에 올랐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미국 음악전문매체 빌보드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1989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봄에 열린다. 음반 판매량을 주요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방탄소년단이 5월 한국 가수 최초로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편집 | 김형주·고형일 기자

한국계 배우들 할리우드서 잘 나가네

애플, 韓 이민자 소재 드라마 제작
'김씨네 편의점'도 내년 시즌3 예정
한국계 배우·한국 소재 전면 부각

최근 영화 '서치'가 신선하고 파격적인 형식과 이야기 구성으로 전 세계 영화 관객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주연 배우는 할리우드에서 활약 중인 존 조. 그를 비롯해 샌드라 오, 그레이스 박, 다니얼 대 킴, 릭 윤, 켈리 정, 이기홍, 스티븐 연 등 한국계 배우들의 활약상도 눈부시다. 이런 가운데 한인들의 이야기를 내세운 드라마가 현지에서 잇따라 만들어져 시선을 모은다.

세계적인 IT기업 애플이 최근 문화콘텐츠 사업을 확장하며 세운 애플드라마가 한국 이민자 가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만든다. 영화진흥위원회와 할리우드 유력 전문지 '할리우드 리포터' 등에 따르면 애플드라마는 미국 이민 1.5세대인 이민자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파친코'를 제작한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과 일본, 미국을 오가는 한 가족의 4대에 걸친 이야기. 원작소설은 미국 뉴욕 타임스 선정 '2017 베스트 북 10'에 꼽히며

현재 대표적인 문학상인 '내셔널 북 어워드' 최종 후보작에 오르기도 했다.

드라마 '파친코'는 캐나다 CBS가 제작한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에 이은 것이다. '김씨네 편의점'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국계 이민자 가족을 소재로 삼아 현재 동영상이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내년 시즌3가 제작될 예정이다.

또 '서치'와 함께 켈리 정 등 아시아계 배우들이 대거 주연으로 나선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 등이 흥행하고, 한국계 작가 제니 한의 소설을 원작삼아 한국계 여성을 주인공 캐릭터로 내세운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가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로 선보이며 호평 받은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모두 향후 한국계 배우들의 더 큰 활약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그 영향력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넷플릭스 등 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한국문화나 한국인과 관련한 콘텐츠를 잇달아 선보이면서 이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한 한류 열기가 일고 있다는 점도 전망을 밝게 한다.

윤여진 기자 tadada@donga.com

차태현 vs 장혁 '용띠 클럽' 연기 대결

'최고의 이혼' 차태현, 생활연기 굶
'베드파파' 장혁, 액션·부성에 눈길

연예계 소문난 절친 연기자인 차태현과 장혁이 연기력 경쟁을 벌여 TV시청자에게 불거리를 주고 있다.

차태현과 장혁은 각각 KBS 2TV 월화드라마 '최고의 이혼'과 MBC '베드파파'를 통해 동시시간대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경쟁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 KBS 2TV 예능프로그램 '용띠클럽-철부지 브로망스'에서는 끈끈한 우정을 보여줘 이들의 '낯선' 대립구도가 시청자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두 드라마가 이제 막 시작해 승부는 팽팽하게 진행 중이다. 차태현보다 일주일 앞선 1일 출격한 장혁은 그동안 잠재워뒀던 액션연기의 본능을 보여주고 있다. 평소 소 격투기, 복싱 등을 즐겨해 인스타그램

에 관련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실력을 공개했던 그는 드라마를 통해 '대놓고' 과시하고 있다. 극중 무패의 복싱 챔피언 역할을 맡은 장혁은 회상 장면을 통해 화려한 실력을 보여줘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자신 때문에 딸(신은수)의 인생을 망친 것 같은 미안함은 진한 부성애로 표현되며 시청자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다.

차태현은 자신의 강점인 '생활연기'로 장혁에 맞서고 있다. 그동안 밝고 긍정적인 인물을 주로 맡았던 그가 '최고의 이혼'에서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곁돌고, 소심한 모습은 이기적으로 비쳐지고,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평소 차태현이 잘 보여 주지 않았던 캐릭터여서 극 초반에는 시청자 사이에서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빠르게 캐릭터에 녹아든 모습으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현장.jpg

'애기씨'의 변신은 무죄

'고귀한 애기씨!' 배우 김태리가 10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주얼리 브랜드 행사에 참석해 미모를 과시했다. 최근 주연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중역 후 미국으로 건너가 화보 촬영 등 밀린 일정을 소화하는 김태리는 이날 우아한 '블랙 스와' 같은 매력으로 시선을 끌었다.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블랙 드레스와 그의 머리칼이 유난히 잘 어울린다. 긴 머리를 유지했던 그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단발머리로 섹시 자른 변화가 특히 눈에 띈다.

뉴욕(미국) | AP·뉴스스